

사역문에 있어서 한·일 대조를 통한 고찰*

－ 「이형」을 중심으로 －

공미희** · 손동주***

本稿は、韓・日使役文の特徴を、形態的、構文的、意味的に分類して考察し、これに基づいて韓国語の使役文「이형」が日本語の使役文と対応する場合と対応しない場合に分けて分析した。

形態的な面では、日本語の使役形は「動詞の語幹+(s)aseru」であるのに比べて韓国語の使役形は「이형」「시키다形」「하다形」で多様で複雑な面がある。構文的な面でも韓・日使役文は、大きく自動詞使役文と他動詞使役文に分類され、両方とも自動詞使役文が他動詞使役文よりは多少複雑な様相を見せて、被使役者が有情物か無情物かによってその用法が異なる。意味的な面では、使役主体の意図と被使役主体の意志的な動作によって事態が実現される典型的な使役から、使役主体の意図と動作によって事態が実現される他動まで様々であるのと同様に、韓国語の使役形式「이형」も主語の意図と動作の有無によって、典型的な使役から他動まで様々な意味がある。このような面で両言語は類似点もあるが、「이형」は、すべての動詞から派生するものではなく語幹の形態と音韻的条件に応じて、その形態が異なるので、日本語の動詞の(s)aseru形に比べて、その分布が極めて限定的だと言える。

キーワード：形態的、構文的、意味的、使役主体、体被使役主体、意図、動作、「이형」、使役、他動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 사역주체, 피사역주체, 의도, 동작, 「이형」, 사역, 타동)

1. 들어가기

한·일 사역문은 형태, 구문, 의미적으로 다소 유사한 점이 많아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역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337)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강사(F.A), kongmihe@pknu.ac.kr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C.A), djson@pknu.ac.kr

2 日本語文學 第 72 輯

문장 중에는 일본어 표현은 가능하나 한국어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국어 표현은 자연스러우나 일본어로 표현하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 (1) a. この店はうまいものを食わせる。
*b. 이 가게는 맛있는 것을 먹인다.
(2) a. 사장이 직원에게 가격을 올리게 했다.
*b. 社長が従業員に価格を上がらせた.

또한, 한·일 사역문에 있어서 대조표현은 반드시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복수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3) a. 母が息子にご飯を食べさせた.
b.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먹였다.
c.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

(3a)는 동사의 기본형 「食べる」에 사역의 조동사 「させる」가 접속해서 「食べさせる」라는 사역형태가 하나이지만, 한국어로 나타내면 (3b, c)처럼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태우다」의 사역접미사 「-우-」가 일본어에서는 「乗らせる」와 「乗せる」와 같이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4) a. 운전수는 손님을 태워 목적지까지 갔다.
b. 運転手は客に乗らせて目的地まで行った。
(5) a. 어머니는 아기를 차에 태워 쇼핑하러 갔다.
b. 母親は赤ちゃんを車に乗せて買い物に行った。

그리고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일본어 사역문의 형태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전형적인 사역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타동의 의미와 사역과 타동의 중간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대응하는 한국어에서도 사역접미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 (6) 母は息子を学校に行かせた。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에 보냈다/가게 했다)
- (7) 太郎は線路の上に木を倒れさせた。
(타로는 선로 위에 나무를 쓰러트렸다/쓰러지게 했다)
- (8) 風が水面に波を立たせた。
(바람이 수면에 파도를 일으켰다/일어나게 했다)

이상과 같이, 사역문중에는 양 언어의 표현방법에 따라 자연스러운 문이 있는가하면 비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일 사역문장에 있어서의 대조표현은 반드시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복수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본어 사역문이 반드시 한국어에서도 사역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국어 사역문이 항상 일본어 사역형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 구문, 의미상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 사역문과 일본어 사역문의 특징을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으로 분류해서 대조고찰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어 사역문 「이형」이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양 언어에 나타나는 사역문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김일웅(1978)은 {이}형태소가 취하는 주어는 [+animate], [-animate]의 경우 모두 가능하며 [+animate]일 때 A(동작주격)이나 E(경험자격)이면 타동사화 형식소로, CA(사역동작주격)이나 C(원인격)이면 사역화 형식소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animate]일 때는 C(원인격)으로서 사역화 형식소로 기능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인격인 C와 경험자격인 E는 전형적인 사동과 타동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어의 의도 및 동작의 유무에 따른 특징 등을 도출해서 그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임현찬(1994)은 사역문의 성립조건인 X(사역자)와 Y(피사역자)

의 성질, X의 사태성립에 대한 작용, Y의 자기제어성의 유무 등을 중점으로 양사역문의 대응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양 언어가 대응관계에 있을 때 X의 Y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천호재(2003)는 Kuroda와 Cruse의 자발문 형성규칙을 도입하여 비대격자동사에 대응시켜, 일본어사역문의 「(さ)せる」가 한국어에서는 「이형」과 「하다형」으로 분류되는 것에 따른 의미적인 특징을 서술하였다. 즉, 「이형」은 사역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문 형성규칙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서 직접사역의 의미를 나타내고 반대로, 「하다形」은 사역화 테스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발문 형성규칙이 적용되어 간접사역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형」이 반드시 직접사역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권승림(2010)은 동작성 술어와 상대성 술어를 한·일 사역문에 대응시켜서 비교 설명했다. 동작성 술어를 상대성술어로 전환하는 방법은 가능문과 부정형 「シテイル」의 경우가 있다고 제시했으며, 이것이 일본어 사역표현으로는 「~ようにする」, 한국어 사역형태소로는 「-하게(하도록) 하다」, 「-하게(하도록) 만들다」와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동사 중에서 심리동사나 감정동사 등도 결국은 대상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상대성 술어에 속하며 이 동사들의 사역표현은 「~ようにする」 이외에도 「(さ)せる」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한국어 사역문에서도 「하다형」외에 「이형」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사역문의 「이형」은 직접적이고 「하다형」은 간접적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왔지만, 「이형」이 간접적인 경우도 있으며 또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양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형」이 주어의 의도 및 동작의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며 또한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하지 않는 「이형」의 특징을 조사하여 양 언어에 나타나는 사역문의 특징도 명확하게 할 것이다.

3. 한국어 사역문과 일본어 사역문의 특징

3.1 형태적 특징

일본어 사역형은 「동사의 어간+(s)aseru」의 형태로 나타내지만 단축형으로서 「동사의 어간+(s)as」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¹⁾

(9) 父は息子をアメリカへ行かせた。(=行かした)

(10) 社長は部下に酒を飲ませた。(=飲ました)

(9)의 「行かせる」는 자동사 「行く」의 사역형으로서 사역주체인 「父」가 피사역주체인 「息子」에게 지시나 명령을 해서 피사역주체인 「息子」의 의지와 동작에 의해서 「アメリカへ行く」라는 사태가 실현되는 사역의 의미이다. (10)은 타동사 「飲む」의 사역형인 「飲ませる」로서, 역시 사역주체인 「社長」이 피사역주체인 「部下」에게 명령 등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部下が酒を飲む」라는 사태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일본어 사역형은 「동사의 어간+(s)aseru」의 단조로운 형태인데 비하여 한국어 사역형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주로 「이형」, 「시키다형」, 「하다형」의 3가지 형태를 들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이형」은 형태적으로는 용언(동사, 형용사²⁾)의 어근에 사역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사역접미사는 동사 및 형용사 어근에 결합되어 사역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가지지만,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일본어와는 다르다. 그러나 한국어 사역접미사는 일본어의 (s)aseru와 같이 어구성의 근

1) 구체적으로 1류동사의 어간에 -aseru를, 2류동사의 어간에 -saseru를 붙여서 만들며, -(s)ase-의 최후 -e-가 떨어진 -(s)as-도 사역의 단축형이라고 말해 사역의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孔美熙(2014) 「動詞の形態素-asに関する考察」 『日語日文学』 61, 大韓日語日文学会, pp.13-20.

2) 본고에서는 일본어 사역문과의 대조연구이며 일본어 사역문이 동사에 (s)aseru를 접속하므로 한국어도 동사의 어근에 접속되는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만 언급한다.

본이며 양쪽 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사역접미사 「이형」이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다 접속되는 것은 아니다.

- (11) 형용사: 깊다→*깊이다
- 자동사: 오다→*오이다
- 타동사: 만나다→*만나이다

또한, 동사가 자연현상일 경우라든지, 주어가 사람인 경우라도 의지성과 동작성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거나, 주어가 신체부분을 나타냄으로써 사태에 대한 의지성이 없는 경우 등은 사역문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일본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³⁾

- (12) a. 달이 서쪽 하늘로 지다.(月が西の空に沈む。)
- b. *누군가가 달을 서쪽 하늘로 지이다.
(*だれかが月を西の空に沈ませる。)
- (13) a. 그녀는 내 할머니에 해당한다.
(彼女は私の祖母に当たる。)
- b. *누군가가 그녀를 내 할머니에 해당하게 하다.
(*だれかが彼女を私の祖母に当たらせる。)
- (14) a. 허리가 늘어지다.(腰が伸びる。)
- b. *누군가가 허리를 늘어지게 하다.
(*だれかが腰を伸びさせる。)

3.2 구문적 특징

한·일 사역문은 동사의 자·타 관계에 따라 크게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 사역문으로 분류된다.

3) 孔美熙(2003) 『自動詞의 (sa)seru形과 使役·他動詞과의 關係』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32-36.

<자동사 사역형>

a. 「Xが Y(に/を) V(さ)せる」 → 「X가 Y(에게/를) V-이형」

b. 「Xが Y를 V(さ)せる」 → 「X가 Y를 V-이형」

<타동사 사역형>

「Xが Yに Z를 V(さ)せる」 → 「X가 Y에게 Z를 V-이형」

양 언어는 모두 자동사 사역문이 타동사 사역문보다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피사역주체가 취하는 격에 있어서 유정물일 때는 여격과 대격이 함께 쓰일 수 있으나, 무정물일 때는 대격만 올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점에서도 두 언어는 유사하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5) a. 母は息子(を/に)食卓に座らせ、食事の準備をした。

b. 어머니는 아들(를/에게) 식탁에 앉히고(앉게 하고) 식사준비를 했다.

(16) a. 母は赤ちゃん(を/*に)椅子に座らせた。

b. 어머니는 아기(를/*에게) 의자에 앉혔다.

(17) a. 植木屋は温室で花(を/*に)咲かせる。

b. 정원사는 온실에서 꽃(을/*에게) 피운다.

(15)는 자동사 사역문으로서 피사역주체에 유정물이 오는 경우로, 양 사역문 모두 사역주체의 지시를 받는 피사역주체에 대격과 여격이 올 수 있다. (16)의 「座らせる」는 자동사 「座る」의 사역형으로서, 피사역주체가 유정물인데도 대격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대상인 「赤ちゃん」에게 사태를 실현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의 「咲かせる」는 자동사 「咲く」의 사역형으로서, 피사역주체가 무정물로서 대격이 온 경우이다.

그리고 아래의 (18)에서와 같이, 한국어 사역문의 「하다형」은 피사역주체에 주격, 대격, 여격이 한 문장에 다 올 수 있지만, 일본어 사역문에서는 여격만 온다.

(18) a. 어머니는 아들의 밥을 먹게 했다.

(*母は息子がご飯を食べさせた。)

- b. 어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
(母は息子にご飯を食べさせた。)
- c. 어머니는 아들을 밥을 먹게 했다.
(*母は息子をご飯を食べさせた。)

또한, 한국어 사역문은 사역주체가 복수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사역의 해석이 가능하다.

- (19) a.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밥을 먹게 했다.
(*父は母に息子がご飯を食べさせた。)
- b.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
(*父は母に息子にご飯を食べさせた。)
- c.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밥을 먹게 했다.
(*父は母に息子をご飯を食べさせた。)

3.3 의미적 특징

宮地(1969)는, 전형적인 사역의 의미를 「ダレカがダレカを動かして、別のダレカに対してナニカするようにする」라고 정의했으며, 이것은 즉, 사역주체의 의도와 피사역주체의 의지 및 동작에 의해서 사태가 실현되는 경우로서, 사역성이 가장 큰 경우이다.

- (20) 母が太郎を買い物に行かせた。

그러나 (21)와 같이 사역주체에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피사역주체에 의지가 없고 동작성만 있는 경우도 있고,

- (21) 太郎は次郎を崖から落ちさせた。

그리고 (22)과 같이 사역주체에 의도가 없고 피사역주체에도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 (22) 彼の一言が私を驚かせた。

그리고 (23)과 같이, 사역주체에 의도가 있고 피사역주체에는 자발적인 동작성이 없어서 결국, 사역주체의 동작에 의해 행위가 실현되는 타동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⁴⁾

(23) 太郎は紙飛行機を飛ばせた。

한국어 「이형」사역은 의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주동, 자동, 능동, 피동」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동 ↔ 사동 자동 ↔ 타동 능동 ↔ 피동

사동은 주동의 반의어로서, 주동이 행위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반해,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타동은 자동의 반의어로서, 자동이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서술어를 가리키지만, 타동은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서술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타동사인 경우는 주어가 대상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상의 자발적인 의지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 사동사의 경우에는 사동주의 시킴을 받은 피사동주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사역과 타동의 의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일사역문은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으로 서로 유사한 면도 많지만, 다른 면도 있다는 사실을 대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4) 孔美熙·孫東周(2012) 「自動詞의 (sa)seru形과 使役·他動詞의 關係-프로토타입理論を中心に-」 『日語日文学』 53, 大韓日語日文学會, pp.17-23.

4. 「이형」 사역형태소의 의미적인 분류

4.1 한국어 사역문이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을 하는 경우

4.1.1 「이형」이 전형적인 사역의미인 경우

4.1.1.1 주어에 의도는 있지만 동작이 없는 경우

김석득(1992)은 「이형」 사역문의 내포적인 의미의 차이를 사역자에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했다.⁵⁾ 전형적인 사역의미인 「이형」이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선생님은 교실에 학생들을 앉히고 오늘 배울 교재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先生は教室で学生たちを座らせ、今日学ぶ教材内容について説明した。)

(25) 형이 동생에게 껌을 씹힌다.

(兄が弟にガムを噛ませる。)

(24)(25)는 「학생들은 앉다(学生たちが座る), 동생이 껌을 씹다(弟がガムを噛む)」라는 기본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사 「앉다」와 「씹다」의 어근 「앉-」과 「씹-」에 사역접미사 「-히-」가 접속된 경우이다. 사역주체인 「선생님」과 「형」이 피사역주체인 「학생」과 「동생」에게 명령이나 지시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이므로, 사역주체의 의도와 피사역주체의 의지 및 동작에 의해 사태가 실현되는 사역의미이다.

5) 사역자에게 의지가 있는 경우를 구속 허용 자유방임으로 나누고, 사역자에게 의지가 없는 경우를 운수의 소치라고 한다.

-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인다. (구속)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인다. (허용)
- c. 그는 차차 집을 늘리었다. (자유의사)
- d. 그는 아이를 죽이었다. (운수의 소치)

- (26)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먹여주신다.
(母はいつも子供たちにおいしい料理を食べさせてくださる。)
(27)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신다.
(母は常に私に靴を履かせてくださる。)

(26)(27)은 「아이들이 맛있는 요리를 먹다(子供たちがおいしい料理を食べる), 내가 신발을 신다(私が靴を履く)」라는 기본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사 「먹다」와 「신다」의 어근 「먹-」과 「신-」에 사역 접미사 「-이-」와 「-기-」가 접속된 경우이다. 피사역주체인 「아이들」과 「내」가 맛있는 요리를 먹도록(신발을 신도록) 사역주체인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경우로서, 어떤 동작이 행해질 수 있도록 사역주체가 의도적으로 배려해 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주다」와 접속하면 배려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게 된다.

- (28) 학생이 아까부터 만화책을 읽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에게 그 책을 읽혔다.
(学生が先から漫画を読みたいとせがんだため、先生は学生にその本を読ませた。)
(29) 어머니는 아이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서 먹였다.
(母親は子供がケーキを食べたいと言って食べさせた。)

(28)(29)는 「학생이 만화책을 읽다(学生が漫画を読む), 아이가 케이크를 먹다(子供がケーキを食べる)」라는 기본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사 「읽다」와 「먹다」의 어근 「읽-」과 「먹-」에 사역접미사 「-히-」와 「-이-」가 접속된 경우이다. 사역주체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피사역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피사역주체인 「학생」과 「아이」가 만화책을 읽고 싶다(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사역주체인 「선생님」과 「어머니」가 허락한 경우이다.

- (30) 어머니는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어서 그냥 놀렸다.
(母は子供が公園で遊んでいたのものでそのまま遊ばせた。)
(31) 어머니는 아들이 집에서 과자만 먹고 있었는데 그냥 먹었다.

(母は息子が家でお菓子ばかり食べていたのに、そのまま
食べさせた。)

(30)(31)은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子供が公園で遊ぶ), 아들이 집에서 과자만 먹다(息子が家でお菓子ばかり食べる)」라는 기본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사 「놀다」와 「먹다」의 어근 「놀-」과 「먹-」에 사역접미사 「-리-」와 「-이-」가 접속된 경우이다. 피사역주체인 「아이」나 「아들」이 이미 시작하고 있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로서, 사역주체인 「어머니」가 막으려고 한다면 막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점에 약한 의도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역의 의미이다.

이처럼, 「이형」 사역문에 있어서 기본문의 주어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동작주체이며, 각각의 동사들은 동작성이 높은 동사로 사역주체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피사역주체의 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사역의미인 경우이다.

4.1.2 「이형」이 사역과 타동의 중간의미인 경우

4.1.2.1 주어에 의도는 없고 동작만 있는 경우

「이형」이 타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주어의 의도와 동작에 의해 사태가 실현되고, 사역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사역주체의 의도와 피사역주체의 의지 및 동작에 의해서 사태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다음의 예들은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을 하면서 사역과 타동의 의미가 아닌 사역과 타동의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 (32) 종소리가 학교수업의 시작을 알렸다.
(鐘の音が学校の授業の開始を知らせた。)
- (33) 바람소리가 아기를 깨웠다.
(風の声が赤ちゃんを目覚めさせた。)

(32)는 기본문인 「학교수업의 시작을 알다(学校の授業の開始を知る)」에서 동사 「알다」의 어근 「알-」에 사역접미사 「-리-」가 결합된 경우이다. 사역주체에 무정물이 와서 사태를 실현시키려는 의도는 없고 동작만 있는 경우로서 대상에 상태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33)은 기본문인 「아기가 깨다(赤ちゃんが目覚める)」에서 동사 「깨다」의 어근 「깨-」에 사역접미사 「-우-」가 결합된 경우이다. 사역주체에 자연현상이 온 경우로서, 사태를 실현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동작에 의해 대상인 아이에게 생리적인 상태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4.1.2.2 주어에 의도도 동작도 없는 경우

주어에 의도와 동작이 없어 사태가 실현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어에 사항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34) 그 드라마가 나를 울렸다.

(そのドラマが私を泣かせた。)

(35) 저 선전은 언제나 우리들을 웃긴다.

(あの宣伝はいつも私たちを笑わせる。)

(34)(35)는 「내가 울다(私が泣く), 우리들이 웃다(私たちが笑う)」라는 기본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사 「울다」와 「웃다」의 어근 「울-」과 「웃-」에 사역접미사 「-리-」와 「-기-」가 접속한 경우이다. 사항명사인 「그 드라마」와 「저 선전」이 원인이 되어 피사역주체인 「나」와 「우리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대상에 생리적인 상태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사역도 타동의미도 아닌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36) 경찰은 범인을 도망케 했다.(警察は犯人を逃げさせた。)

(37) 어머니는 과일을 썩혔다.(母は果物を腐らせた。)

(36)은 동사어근 「도망가-」에 사역접미사 「-히-」가 접속한 경

우로서, 피사역주체인 「범인」에게 동작성이 있어 사태 「범인이 도망가다(犯人が逃げる)」가 실현된데 대해서 사역주체인 「경찰」이 부주의했음을 느끼는 경우이다. (37)는 기본문인 「과일이 썩다(果物が腐る)」의 동사어근 「썩-」에 사역접미사 「-히-」가 결합된 경우로서, 역시 사역주체인 어머니가 사태실현에 대한 부주의함을 느끼는 경우로서 의도와 동작이 없는 사역과 타동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38) 어머니는 아이를 이질로 죽였다.
(母は子供を疫痢で死なせた。)

(38)은 기본문인 「아이가 이질로 죽다(子供が疫痢で死ぬ)」의 동사어근 「죽-」에 사역접미사 「-이-」가 결합된 경우이다. 사역주체인 「어머니」가 피사역주체인 「아이」에게 이질로 죽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또한 피사역주체인 「아이」에게도 병으로 죽으려는 의지 및 동작성이 없었으나 단지, 아이가 병으로 죽는데 대해서 어머니가 책임을 느끼는 경우로서 사역도 타동의미도 아닌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39) 그 사건이 나를 괴롭힌다。(その事件が私を苦しませる。)

(39)는 기본문인 「내가 괴롭다(私が苦しむ)」의 동사어근 「괴롭-」에 사역접미사 「-히-」가 결합된 경우이다. 사역주체인 사항명사가 원인이 되어 대상인 「나」에게 심리적인 상태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며 역시 사역주체에 의도와 동작이 없는 사역과 타동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40) 상처를 빨리 아물려면 이 약이 가장 좋다.
(傷を早く塞がらせるには、この薬が一番よろしい。)

(41) 그 해 질 무렵에 큰 꽃을 피우는 나무로 매우 좋은 냄새가 납니다.
(あの晩方に大きな花を咲かせる木で、大変にいいにおいがします。)
『オシャベリ姫』

(40)은 「상처가 빨리 아물다(傷が早く塞がる)」라는 기본문을 내포하며 동사의 어근 「아물-」에 사역접미사 「-리-」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41)도 「큰 꽃이 피다(大きな花が咲く)」의 기본문을 내포하며 동사의 어근 「피-」에 사역접미사 「-우-」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둘 다 대상인 「상처, 꽃」 그 자체에 「아물다, 피다」의 본성 및 자발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역주체의 행위를 빌리지 않고도 사태가 성립되며 사역의 의미에서 타동의 의미로 넘어가는 통과점이라고 볼 수 있다.

4.1.3 「이형」이 전형적인 타동의미인 경우

4.1.3.1 주어에 의도와 동작이 있는 경우

김일웅(1978)은 접미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동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동사라고 해야 할 동사가 있는가 하면, 사동의 의미가 없고 타동사라고만 해야 할 동사도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를 벗어난 것은 사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라고 했다. 「이형」이 전형적인 타동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서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구슬을 굴렸다. (ビー玉を転がらせた。)

(43) 어머니가 얼음을 얼리다. (母が氷を凍らせる。)

(42)는 「구슬이 구르다(ビー玉が転がる)」라는 기본문을 내포하며 동사의 어근 「구르-」에 사역접미사 「-리-」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43)도 「얼음이 얼다(氷が凍る)」의 기본문을 내포하며 동사의 어근 「얼-」에 사역접미사 「-리-」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대상인 「구슬, 얼음」 그 자체에 「구르다, 얼다」의 본성 및 자발성이 있는 경우지만, 둘 다 사역주체의 의도 및 동작에 의해서 사태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타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44) 그에게 닿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거기서 다양한 뜻밖의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彼に触れるすべてを温め、そこから種々な思いがけない芽を出させ、実を結ばせるのだ。) 『沙門悟淨の手記』

(44)는 「열매가 맺다(実が結ぶ)」라는 기본문을 내포하며 동사의 어근 「맺-」에 사역접미사 「-히-」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자연현상이라 할지라도 사역주체인 「그」가 의도를 가지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도록 환경을 조성한 경우이므로 동작이 인정되는 타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45) 곧 스기무라 군이 자전거를 굴러 와주었다.

(間もなく杉村縦横君が自転車を走らせて来てくれた。) 『獄中生活』

(45)는 「자전거가 구르다(自転車が走る)」라는 기본문을 내포하며 동사의 어근 「구르-」에 사역접미사 「-리-」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대상에 교통기관이 왔으나 단독적인 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역주체인 「스기무라」가 직접 페달을 굴러서 자전거를 달리게 하는 즉, 사역주체의 의도와 직접적인 동작에 의해서 사태가 실현되는 타동의 의미다.

(46) 아주머니는 부업으로 조화를 피웠다.

(小母さんは内職の造花を咲かせていた。)

(47) 아이가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子供が紙飛行機を飛ばせる。)

(46)(47)은 「조화가 피다(造花が咲く), 종이비행기가 날다(紙飛行機が飛ぶ)」의 기본문을 내포하며 동사의 어근 「피-」와 「날-」에 사역접미사 「-우-」와 「-리-」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아주머니가 부업으로 꽃을 직접 만들어서 피게 한 경우와 아이가 종이비행기를 직접 날린 경우로서, 사역주체의 의도와 동작에 의해서 사태가 실현된 타동의 의미다.

4.2 한국어 사역문이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4.2.1 한국어 「이형」과 일본어 타동사

한국어 「이형」은 사역을 나타내는 형태소뿐만 아니라 타동사 및 수동의 형태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형」으로 그 용법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음은 「이형」이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하지 않고 타동사와 대응하는 경우이다.

(48) 학생이 선생님을 속이다. (学生が先生をごまかす。)

(49) 타로가 지로를 숨긴다. (太郎が次郎を隠す。)

(48)(49)는 사역주체와 피사역주체에 둘 다 유정물이 온 경우로서, 한국어에서는 「이형」 사역문이 사용되었으나 일본어에서는 타동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50) 바람이 모자를 날렸다. (風が帽子を飛ばした。)

(51) 지게차가 피아노를 올렸다.

(フォークリフトがピアノを3階に上げた。)

(50)(51)은 사역주체와 피사역주체에 둘 다 무정물이 온 경우로서, 한국어에서는 「이형」 사역문이 사용되었으나 일본어에서는 타동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50)은 사역주체에 자연현상이 와서 사태실현에 대한 의도는 없으나 동작이 있는 경우이며, (51)는 사역주체에 기계류가 와서 의도는 없으나, 동작이 인정되며 배후에는 항상 이 기계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이 약은 머리를 길렀다. (この薬は髪のを生やした。)

(53) 부자연스런 태도가 나를 괴롭힌다.

(不自然な態度が私を苦しめる。)

『こころ』

(52)(53)은 사역주체에 의도와 동작이 없는 경우로서 한국어에서는 「이형」 사역문이 사용되었으나 일본어에서는 타동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52)는 사역주체에 무정물이 와서 대상의 생리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내고, (53)도 역시 사역주체에 무정물이 와서 대상에 심리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낸 경우로서 둘 다 일본어 타동사와 대응한다.

(54) 나는 얼음을 햇볕에 내놓으며 녹이는 공리를 했다.

(私は氷を日向に出して溶かす工夫をした。) 『こころ』

(55) 어머니가 쇠고기를 익히다. (母が牛肉を煮る。)

(54)(55)는 사역주체가 유정물이고 피사역주체에 무정물이 온 경우로서, 둘 다 사역주체에 의도와 동작이 있어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형」이 의미상 타동의미를 나타내고, 일본어 타동사와 대응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이형」과 대응하는 일본어 타동사는 사역주체의 피사역주체에 대한 행위가 직접적이고 사역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피사역주체의 의지 및 자발적인 동작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이형」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일본어에서는 주어의 행위만 존재하고 대상의 변화는 결과로서만 표현되는 상태변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타동사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한국어 「이형」과 일본어 수동형

일본어의 경우는 조동사 「(き)せる」와 「(ら)れる」가 각각 사역과 수동표현에 사용됨으로서 형태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나, 한국어는 「이형」 접미사가 사역과 수동 둘 다에 접속되므로 형태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이형」이 수동형과 대응하는 경우이다.

(56) a. 어머니는 아이에게 눈을 감기다.

(母親は子供に目を閉じさせる。)

b. 아이 눈이 어머니에 의해 감기다.

(子供の目が母によって閉じられる。)

(57) a. 선생님이 학생에게 창문을 닦이다.

(先生が学生に窓を磨かせる。)

b. 창문이 학생에 의해 닦이다.

(窓が学生によって磨かれる。)

(56a.b)처럼, 한국어 「감기다」는 (56a)의 사역형 「감기다」와 (56b)의 수동형 「감기다」와 형태상으로 같다. 물론 문장의 격 관계나 의미를 통해 사역과 수동이 구분되나 형태만을 보았을 때 구분이 어렵다. (57a. b)도 한국어 「닦이다」가 (57a)의 사역형 「닦이다」와 (57b)의 수동형 「닦이다」가 형태상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이형」이 사역의 형태소가 아닌 수동형과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역접미사와 수동접미사로 사용되는 「이형」이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에서 「이형」 사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등으로 다양하나 수동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타동사뿐이다.

5. 결 론

이상으로, 한국어 사역문과 일본어 사역문의 특징을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어 사역문 「이형」이 일본어 사역문과 대응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양 언어에 나타나는 사역문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했다.

첫째, 형태적인 면에서 일본어 사역형 「동사의 어간+(s)aseru」는 단조로운데 비하여 한국어 사역형은 「이형」 「시키다형」 「하다형」으로 일본어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면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 사역 접미사는 동사 및 형용사 어근에 결합되어 사역의미를 첨가하는 기능을 가지지만,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일본어와 다른 특징이나, 양쪽 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통특징을 가진다.

둘째, 구문적인 면에서는 한·일 사역문은 동사의 자·타 관계에

따라 크게 자동사 사역문과 타동사 사역문으로 분류되며 양쪽 다 자동사 사역문이 타동사 사역문보다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피사역주체가 유정물일 때와 무정물일 때 그 용법이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사역주체가 취하는 격에 있어서도 유정물일 때는 여격과 대격이 함께 쓰일 수 있으나, 무정물일 때는 대격만 올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점에서도 두 언어는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어 사역문의 「하다형」은 피사역주체에 주격, 대격, 여격이 한 문장에 다 올 수 있지만, 일본어 사역문에서는 여격만 오고 또한, 한국어 사역문은 사역주체가 복수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사역의 해석이 가능하나 일본어사역문은 불가능하다.

셋째, 의미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어에서는 동사의 (s)aseru형이라 하더라도 사역주체의 의도와 피사역주체의 의지 및 동작에 의해 사태가 실현되는 전형적인 사역에서, 사역주체의 의도와 동작에 의해서 사태가 실현되는 타동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미 孔美熙·孫東周(2012)에서 확인되었다. 이번에 분석내용인 한국어 사역문 「이형」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일본어사역문과 대응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형」 사역형태소의 의미적인 분류】

한·일 사역문	분류	분류기준	분류내용
대응관계	「이형」이 전형적 사역의미	주어의 의도(유) & 동작(무)	<p>▶지시·명령 형이 동생에게 껌을 씹힌다. (兄が弟にガムを噛ませる。)(25)</p> <p>▶배려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먹여주신다. (母はいつも子供たちにおいしい料理を食べさせてくださる。)(26)</p> <p>▶허락 어머니는 아이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서 먹였다. (母親は子供がケーキを食べたいと言って食べさせた。)(29)</p> <p>▶방임 어머니는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어</p>

			서 그냥 놀렀다. (母は子供が公園で遊んでいたの そのまま遊ばせた。)(30)
「이형」이 사역과 타동의 중간의미	주어의 의도(무) & 동작(유)		▶주어가 사형명사 종소리가 학교수업의 시작을 알렸다. (鐘の音が学校の授業の開始を知らせた。)(32) ▶주어가 자연현상 바람소리가 아기를 깨웠다. (風の音が赤ちゃんを目覚めさせた。)(33)
	주어의 의도(무) & 동작(무)		▶대상의 생리적 상태변화 그 드라마가 나를 울렸다. (そのドラマが私を泣かせた。)(34) ▶부주의 어머니는 과일을 썩혔다. (母は果物を腐らせた。)(37) ▶책임 어머니는 아이를 이질로 죽였다. (そ母は子供を疫癘で死なせた。)(38) ▶대상의 심리적 상태변화 그 사건이 나를 괴롭힌다. (その事件が私を苦しませる。)(39) ▶대상의 본성 및 자발성 상처를 빨리 아물려면 이 약이 가장 좋다. (傷を早く塞がらせるには、この薬が 一番よろしい。)(40)
「이형」이 전형적 타동의미	주어의 의도(유) & 동작(유)		▶대상의 본성 및 자발성 어머니가 얼음을 얼린다. (母が氷を凍らせる。)(43) ▶자연현상 그에게 닿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거기 서 다양한 뜻밖의 싹을 내고 열매를 맺 히는 것이다. (彼に触れるすべてを温め、そこから 種々な思いがけない芽を出させ、実を 結ばせるのだ。)(44) ▶대상이 교통기관 곧 스기무라 군이 자전거를 굴려 와 주었다. (間もなく杉村縦横君が自転車を走ら せて来てくれた。)(45) ▶대상이 물명사 아주머니는 부업으로 조화를 피웠다. (小母さんは内職の造花を咲かせていた。)(46)
비대응 관계	「이형」이	유정물/	▶사역주체 & 피사역주체: 유정물 학생이 선생님을 속이다. (学生が先生をごまかす。)(48)

	타동사인 경우	무정물	▶사역주체 & 피사역주체: 무정물 바람이 모자를 날렸다. (風が帽子を飛ばした。)(50) ▶사역주체(무정물)&피사역주체(유정물) 부자연스런 태도가 나를 괴롭힌다. (不自然な態度が私を苦しめる。)(53) ▶사역주체(유정물)&피사역주체(무정물) 어머니가 쇠고기를 익힌다. (母が牛肉を煮る。)(55)
	「이형」이 수동형인 경우	격 관계	▶a. 어머니는 아이에게 눈을 감기다. (母親は子供に目を閉じさせる。) b. 아이 눈이 어머니에 의해 감기다. (子供の目が母によって閉じられる。)(56)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어동사의 (s)aseru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사역형식 「이형」도 주어의 의도와 동작의 유무에 따라 전형적인 사역에서 타동까지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양 언어는 서로 닮았으나, 「이형」은 모든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어간의 형태와 음운적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어 동사의 (s)aseru형에 비해 그 분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형」에 한정해서 일본어 사역문과 비교분석했으나, 금후에는 「시키다형」, 「하다형」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영부(1992) 「韓·日使役構文の対照研究－言語の普遍性·言語類型論과의 関連을 통 해서－」 『日語日文学研究』 21, 韓国日語日文学会, pp.51-84.
 고영근·구본관(2009)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pp.358-378.
 孔美熙(2003) 『自動詞의 (sa)seru形과 使役·他動과의 關係』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2-36.
 _____(2014) 「動詞の形態素 -asに關する考察」 『日語日文学』 61, 大韓日語日文学会, pp.13-20.
 孔美熙·孫東周(2012) 「自動詞의 (sa)seru形과 使役·他動과의 關係－프로토타입理論을 中心に－」 『日語日文学』 53, 大韓日語日文学会, pp.17-23.
 權勝林(2010) 「狀態性述語의 使役化について－日·韓對照研究－」 『일본연구』 제43호,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507-524.

- 金錫得(1992) 『우리말 形態論』 塔出版社, p.510.
- 김일웅(1978) 「이 사역문과 타동사문」 『허용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科学社, pp.183-206.
- 김형배(1996) 『국어 과생 사동사의 통시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pp.15-40.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pp.293-309.
-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pp.288-301.
- 柳性基(1992) 『国語 使動詞에 관한 通時的 研究』 진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pp.13-39.
- 송창선(1990) 「사동과 타동」 『문학과 언어』 11권 1호, 文学과言語研究会, pp.111-129.
- 임현찬(1994) 「韓·日兩言語에 있어서의 使役文 - 兩言語가 使役文으로 対応하지 않을 경우 -」 『日語日文学研究』 26, 韓国日語日文学会, pp.19-48.
- 千昊載(2003) 「非対格自動詞使役構文の日韓対照」 『日語日文学研究』 46, 韓国日語日文学会, pp.172-180.
- 井上和子(1976) 『変形文法と日本語上・下』 大修館書店, pp.48-75, pp.66-131.
- 定延利之(1991) 「SASEと間接性」 『日本語のヴォイスと他動性』 くろしお出版, pp.123-142.
-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pp.271-284.
- 孫東周(1999) 「韓·日使役文の比較研究」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 創刊号, 東アジア日本語教育・日本文化研究学会, pp.147-165.
- 鄭聖汝(2001) 「意味を基盤とした韓日使役構文の分析 - 非規範的使役構文を手がかりとして -」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p.37-81.
- _____ (2007) 「使役連続性を超えて: 日韓対照の観点から」 『神戸言語学論叢』 西光義弘教授還暦記念号, 神戸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pp.21-28.
- W.M. Jacobsen(1992) 『The Transitive Structure of Events in Japanese』 くろしお出版, pp.258-269.

용례출전

- 小泉保ら外(1989)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 大修館書店
- 堺利彦(1955) 『獄中生活』 三一書房
- 中島敦(1968) 『沙門悟浄の手記』 角川書店
- 夏目漱石(1951) 『こころ』 角川文庫
- 夢野久(1992) 『オシャベリ姫』 筑摩書房

<Abstract>

A Study of Contrast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
Causative Sentences
- Focused on “이형” -

Kong, Mi-Hee · Son, Dong-Ju

In this paper, the features of the Korea-Japanese causative statement is described morphological, syntactic, and with semantically classification.

In morphological aspect, Japanese causative form is compared to the monotonous to put the “stem + (s) aseru of the verb”, Korean causative form “이형” “시키다형” “하다형” are diverse and complex as compared to the Japanese

In syntactic aspect, intransitive causative statement is somewhat complicated than transitive causative statement. we see that cause is used differently its usage depending on the animateness and inanimateness, in these aspects, both of language are similar, too.

In semantic aspect, Korean causative “이형” is many ways from the typical causative to transitivity. Such although both languages in terms there are similarities, “이형” it compared to (s) aseru form the verb of Japanese and its distribution was limited to the fact that is extremely limited.

Key Words : morphological, syntactic, semantic, causer, cause, intention, activity, 이형, causative, transitivity

투 고 일 : 2016년 1월 10일
심 사 일 : 2016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2월 2일